

2020년 7월 12일 “창세기의 사람들(1) 아담과 가인”(창 3:20-21; 4:16-17)

<도입>

앞으로 창 3~11 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가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부모로부터 그들이 지은 잘못과 은혜의 회복의 과정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회복의 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1] 아담의 길과 가인의 길

<둘 다 죄를 지음>

아담과 가인은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의 중심에는 말씀을 어기도록 사주한 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마음 속에 시기, 경쟁심, 열등감, 수치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도 결국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명의 질서와 조화를 파괴한 것입니다.

<죄 지은 후>

죄를 짓고 숨은 아담 부부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저 여자때문에,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지만, 그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했습니다. 3:14 절부터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변명하거나 반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청과 긍정적 자세가 있었다는 것은 **20-21** 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이 아내를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생명의 시작이고 유업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 주신 가죽옷을 입은 것은 자기들이 만든 나뭇잎 치마를 버렸고, 주님께 의지하는 새 삶을 살았음을 상징합니다.

가인의 범죄 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고 묻자, 모른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피하려는 아담의 변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고 하시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12 절)고 하시니 그는 무서워했습니다(13-14 절).

그리고 주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엿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이를 부정하셨고, 그가 두려워하는 죽임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증하며 약속의 표를 주신 것은 삶과 성품을 해치는 불안을 해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아담과 가인의 차이점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보였던 태도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경청했고, 가인은 자기를 변명하고, 말씀을 비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이 선택한 태도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더 여쭙 수는 있지만 자신을 변명하고 반론하고 따진다면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잃습니다.

[2] 대조적 결말

아담과 가인은 대조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놀람과 도전이 됩니다. 앞서 **3:20-21** 에서 보았듯이, 아담은 생명을 잇는 본분을 기뻐합니다. 비록 출산이 고통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 소산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본분에 대한 주체의식과 정체성이 확고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인생이라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게 지혜임도 알았습니다.

아담은 가인의 현실에 대해 긍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명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4:25**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3**, ‘아담은 130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셋)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출산의 고통, 자원의 결핍, 가까이 아들의 죄로 인해 괴로워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본분의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잇는 것은 창조의 회복에 소중한 의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인은 변명과 불안이 가득한 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부여하신 능력에만 의지했습니다. 16 절,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능력으로 모든 기술과 문화와 사회를 고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능력만 의지하니 결국 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라멕이라는 후손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반창조적인 삶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도 있음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습, 둘 다 보여줍니다.

오늘 날 생명보다 성장, 편리, 풍요를 앞세우는 지구촌은 거대한 가인의 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가인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택해야 할지 갈림길을 서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고귀함입니까, 오직 발전과 부요입니까? 주님의 창조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빛어지는 관계와 소명 속에 우리의 본분에 대한 진정한 주체의식과 정체성이 규정됩니다. 이 축복이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나는 주님과 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위의 아담과 가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기울여 보십시오.
2. 이 세상은 거대한 가인의 성과 같음을 인정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에 관해 어떤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족, 교회 등, 맺고 있는 관계 살피면서 생각해 보세요.